

##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이란의 무슬림들

인터넷 기사

“오늘날 이란은 열린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살고 있는 단혀진 땅이다. 전세계에서 복음에 가장 열려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만의 이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있다.”

“정부에 배신 당하고, 종교에 환멸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전망에 눌린 이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 이들은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 온 가족, 남종과 여종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christianpost.com/article/20101020/tens-of-thousands-of-muslims-coming-to-christ-says-iranian-leader/>

### 이스라엘 경찰청장 스캔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위직 중 하나는 경찰청장입니다. 우리 바르 레브 Uri Bar Lev 가 차기 임명자였습니다. 그의 임명이 발표된 뒤, 경찰청의 고위 여성 고문 오를리 이네즈 Orly Inez 가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성적 부도덕에 대한 소문은 온갖 신문과 TV 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쇄 스캔들의 일환으로, 이미 하임 라몬 Haim Ramon 前 법무 장관, 모세 카짜브 Moshe Katsav 前 대통령 등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추행 고소에는 보통 증인이 없다는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사건은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의 대결이 됩니다. (성경은 증인이 없을 경우의 문제를 신 22:24-25, 19:15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주의 토라 할당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거부하다가 그녀를 추행했다는 고소를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창 39). 바르 레브의 경우, 성적으로 불량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것이 강간인가 아닌가가 문제입니다.

예슈아의 제자 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왕국에서 통치 직책을 맡기 위해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의 예들과 현대의 예들 모두를 통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르 레브는 임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간에 말입니다. 라몬과 카짜브가 직위를 잃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적 부도덕이나 강간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적 불량 행위는 모양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의로 행하면, 메시아와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롬 5:17).

### 한국 미사일 공격

아세르 인트레이터, 송만석, 김예정

화요일, 북한은 176 발의 미사일을 남한에 쏘아 4명의 사망자와 19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북한 정부가 남한 측에 미군과의 일상적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을 때였습니다. 남한 정부가 거부하자, 북한은 연평도라는 작은 섬에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연평도에는 남한의 군사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어부인 1,700명의 민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내부의 문제로부터 자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이번 위기를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에는 약 40만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들은 잔혹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을 기도로 올려 드립니다.

이스라엘 신문 마이리브의 나다브 아얄 <sup>Nadav Ayal</sup> 기사는 이란의 핵 발전소와 북한의 핵 발전소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썼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이 핵 무기를 갖게 되면 자체적으로 일종의 보험 증권을 얻게 됩니다. 북한이 남한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남한이 더 강하고 더 부유하지만, 남한은 억제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남한은 합리적 사고를 하고, 이 사건으로 핵 전쟁에 뛰어들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수십 년간 평화 보장이라는 목표 하에 애써 왔습니다. 왜냐하면 핵 무기를 가진 강국들이 양측의 대응으로 세계 전쟁을 시작하여 공멸에 이르는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이 먹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 관점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핵 무기를 가진 강국 지도자들이 최소한도의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허나 김정일 같은 독재자나 급진 이슬람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합리적 사고라는 기본적 가정이 먹히질 않습니다.

이란이 국경을 넘어 이라크를 장악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UN에서 연이어 그 행위는 “유감이었다,” 심지어 “용인할 수 없다”는 성명들을 내는 것입니다.

세계는 근 10년간 전례 없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이성적 지도자들이 대량 학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계 평화 보장이 “전쟁 억제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쟁 억제라는 개념이 거의 정신이 나갔거나 종교적 기만에 세뇌된, 자국민의 대량 학살도 억제할 수 없는 지도자들에게는 통하질 않습니다.

## 하임 암살렘 <sup>Haim Amsalem</sup> 랍비

이스라엘의 4대 정당은 샤스인데, 세파라디 정통 유대교 정당입니다. 그 중 크네셀 의원인 하임 암살렘 랍비가 학교에서 핵심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유대교로의 개종 절차를 완화하며 예시바 학생들을 일터로 보내는 등의 개혁안을 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혁안을 제의함으로써, 암살렘은 결국 자신을 “아말렉” 혹은 “비루한 자,” “그 자(예수-최악의 모욕)”에 비유하며 샤스 당에서 쫓아낸 지도층과 대립 구도를 이뤘습니다.

그의 제안이 이스라엘 사회에 유익이 되고 정통 유대교에 긍정적 개혁을 가져올 것이므로, 그를 위해 기도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